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주자학, 불교에 근접하여 새로워진 유교

명덕(明德)은 아시아사피,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 첫머리에 나오는 표준구입니다. 명명덕어전하(明明德於天下), 즉 인간 교육의 목표, 혹은 위대한 정치의 이상은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덕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말 그대로,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한 개인에게 요구된 도덕적 원칙이었을 것입니다. 주자는 그러나, 이 개념을 자신의 사유 속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자의 새로운 유교

주자는 자신의 파격적 해석을 설득하기 위해 <대학> 경전을 다시 편집하고, 거기다 자기가 쓴 글을 끼워넣기까지 하는 참람한, 혹은 독창적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조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 그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독창적 해석의 취지는 서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누구에게나 인의 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주었다. 그런데 기질(氣質)의 밝음(爽)이 고르지 못해, 각자가 '이미 갖고 있는(固有)' 것을 깨닫지 못

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총명한 지혜의 사람이 있어 자신의 본성을 장악한 선각(先覺)이 되면, 하늘은 그로 하여금 억조창생의 군사(君師)로 세우,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쳐, 그리하여 모두가 자신들의 '본성을 회복하게' 했다."

이 말에서 분명하듯이, 주자학의 과제는 "자신의 숨겨진, 때 묻고 탁해진 본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곳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자는 인간의 모든 훈련과 교육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修己), 다음 다른 사람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治人)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목표이고, 수많은 제도과 법률 또한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이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굳이 <대학> 본문의 친민(親民)을 새롭게 한다는 뜻의 신민(新民)으로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조하는 수신제가(修身齊家) 국평천하(國平天下)의 모토를, 자신의 깨달음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어둠을 걷어내는

이러면 '깨달음의 사회화'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질의 가림과 업장의 두터움

주자학에서 성(性)과 명덕(明德)은 동의어입니다. 그 모두가 우리 마음의 바탕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빛은 인간의 편견과 의도, 선입견 등에 의해 굴절되고 외곽되어 있습니다. 주자학은 이것을 '기질의 가림(氣質之蔽)', 혹은 '기질의 구

득 깊이 휴식할 때, 안팎이 다 고요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무런 편견이나 의도가 없이 무심히 사물과 응접할 때 덕(德)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의지적 장애만 없으면 본래의 빛과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학의 기획은 철저히 내면적이고 그 중심은 자각에 있습니다. 주자는 "마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벗겨 내는 것"이 바로 공부이며, 그 어둠을 벗겨낸

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적은 대로 그 핵심은 경(敬)입니다. 경에도 여러 공부가 있지만, 그 중심은 구방심(求放心), 즉 '집 나간 마음을 불러오기'입니다.

경(敬)은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는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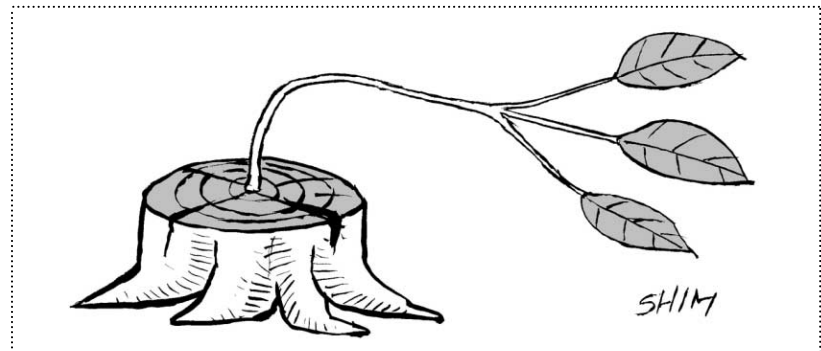
방심(放心)이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비자각적 상태', 멍한 정신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자학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이 행위자의 외면적 선택에 유

치와 산란을 깨고 생생한 자기의식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은, 그러나 아주 쉽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차!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었지?"라는 자각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공부입니다.

이 훈련이 득력(得力), 힘을 얻으면 운전 연습 때처럼 자각의 지속이 길어지고, 또 밝은 상태가 고양됩니다. 이로써 유전과 경험의 복합으로 하여 구조화되어 있던 자기 망각과 그와 연관된 두터운 업장의 장애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인간 내부에 본래 있던 덕성(德性)의 빛이 점점 더 크게 밝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양성(養性), 즉 '덕성의 배양'은 동시에 복기초(復其初), 즉 '자기 안에 있던 본래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퇴계는 이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율곡에게, 구방심이 공부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그 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구상은 그러나 주자의 것이지,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맹자>의 발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방심(放心을) 자기 의식의 망각이라는 사태로 읽지 않고 '양심의 망각'으로 읽었습니다. 이 차이는 맹자와 주자의 학문을 가르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자의 새로운 포부와 구상이 어디선가 들었던 이 아이같지 않습니까, 불교의 자각자각(自覺自覺),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도와 연술만 다를 뿐, 취지는 같아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컨대 이 '자각'의 기획이 주자학을 불교와 근접하게 했고, 원시 공맹의 유향과는 거리가 있게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새로운 유교'(Neo-Confucianism)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둠 속에 갇힌 불꽃



속(氣質之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상을 향한 사적 의지와 탐욕이 가세하여 그 빛을 더욱 짙게 차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짙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래의 덕(德)이 갖춘 어둠은 끝끝내 질식되지 않습니다.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 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그것은 흡사 "재에 파묻힌 불씨, 진흙에 덮인 구슬, 먼지에 뒤덮인 거울"처럼 때때로 가려지고 더럽혀져 있지만, 자신의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도 어느 순간, 그 뒤덮인 어둠의 한 틈서리를 뚫고 자신 내부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내 속에 있던 덕성(德性)의 빛이 '분명하게(洞然)' 드러납니다. 그것은 흡사 불교의 깨달음이나 선가의 돈오(頓悟)같은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험이 그렇게 신비롭고 비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사람과 얽히지 않고, 일도 쉬고, 문

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의 빛'을 회복했을 뿐인 것입니다.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본성의 밖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찾는다는 것이 아니다." (所謂明明德者, 而非有所作爲於性分之外也.)

그럼, 이제 문제는 각자의 본성을 어떻게 자각하고 그 빛과 힘을 회복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주자는 다양한 공부와 수련을 제

래하기 이전에 이미 원초적으로 내면적 자기망각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방심, 즉 자기 망각에 있는데, 주자학은 이 자기 망각이 유전과 경험의 복합으로 하여 심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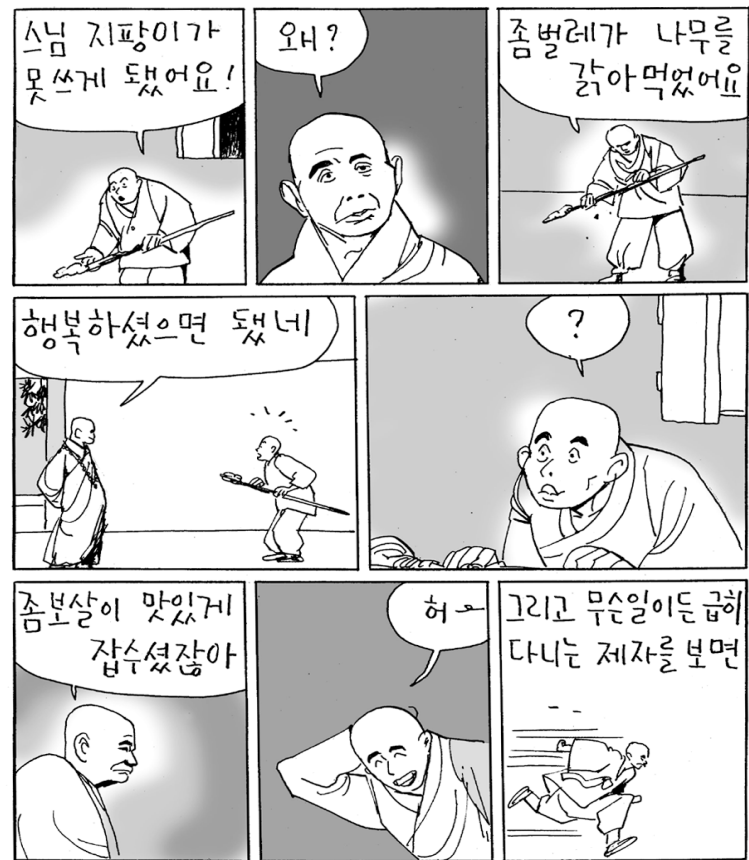
구방심(求放心)은 바로 이런 자기 망각의 비자각적 상태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노력인데, 그와 같은 의식의 혼란(昏亂), 즉 혼침(昏

주장사파라...

69 지월 스님의 '마음 돌리기'



조태호



병안 지월(炳安 指月:1911~1973): 1927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출가. 자비인욕 보살로 불림. 민중 하심(下心) 선사로 유명. 해인종림 주지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불교 수행법이 다양한 이유?"

1.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참선, 염불, 절, 간경, 사경 등 그 수행법의 종류와 방법이 제각기입니다. 왜 이렇게 불교 수행법이 많나요? 또 수행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안목이 필요한지요? 또 이 수행법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만약 그것이 깨달음이라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으로 과연 깨달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ifotago)

답1: 사람의 꼴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꼴이 수용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에 다양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 꼴을 벗어날 줄도 몰라 더 여유로 외치고 자유로 외치는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참선, 염불, 절, 간경, 사경 등의 수행법도 그런 면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도 되겠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 염불 간경 사경 등으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사람에 꼴에 따라 맞추어진 것이라 어느 게 더 낫다 할 수 없지요. 때문에 자기형편을 잘 모르는 이는 수행법을 선택하는데 좋은 안목이 있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형편과 꼴에 맞추어 안내를 잘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불법을 바로 공부해 증득하게 되면 자신의 꼴에 놓이지 않고 이 꼴을 벗어날 줄도 알아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돼 큰 지혜로서 세상과 대면하게 되지요 (도래미)

답2: 불교 수행법이 다양한 이유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깨달음을 서울이라고 가정하여 서울을 잘 아는 사람(가이드, 선지식, 깨달은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묻는 사람(수행자에게)을 자신은 길을 어떻게 가리켜 주는 것은 다양합니다. 또 수행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안목이 필요할지 걱정 말고 우선 스승님을 찾으십시오. 길을 제대로 찾아가려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낫습니다. 스승(선지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선지식)은 길을 찾는 사람(수행인)이 처한 사정(근기에 따라 가는 방향(방법, 수행법)을 확실하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이니, 대도는 무문이라 해서 어떤 길(방법)이든 자신이 지금 처한 곳(근기)에 따른 가이드(선지식)의 안내(수행방법)에 따라 그대로만 따라 행하면 필경 서울(깨달음)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법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즉신시불(即身是佛)'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한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이 이 몸이 대로가 그대로 삼세불과 다르지 않은 부처임을 깨달아 생사와 해탈변뇌 등 일체의 분별과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한가하게 걸림 없이 살기 위함이지요.

불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indicating starting points for words.

상식퍼즐

- 1. 총무공 〇〇〇 장군 2.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돈오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뜻 3. 율곡 〇〇 4. 조선시대에 임금·왕자·왕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 5. 작은 것을 탐하다 6. 오해 7. 큰 것을 잃음 8. 새로 입학한 학생.

- 정답은 26면에
- 1.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어함 7. 고려 공민왕 때 개혁정치를 담당하였던 승려로 법호는 청한거사 8. 책 파는 가게 9. 참, 보리, 콩, 기장, 조를 이르는 말 10. 임금님의 음식을 준비하던 곳 11. 남자들의 머리를 자르는 곳 12. 은혜로운 덕이 모든 백성에게 고루 미침 13. 각종 상체에 대하여 이를 감아서 환부를 보호하고 또는 고정하는 의료보조용 재료 14. 제주도의 옛 이름 15. 일지적으로 의식을 잃음.